

디지털 시대의 핵심가치와 원칙 담은 「디지털 교육 규범(시안)」 논의

- 「제10회 디지털 인재양성 100인 토론회」에서 전문가·교육구성원 등과 함께 논의
- 인간의 성장·발전 위한 디지털 기술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 강조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28일(목) 서울교대에서 한국교육학회(회장 신현석),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소장 정제영)와 함께 ‘제10차 디지털 인재양성 100인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교육기술(에듀테크) 활성화 등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디지털 기술이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대의 교육 규범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교육 규범 체계 정립 방향’을 주제로 교육 전문가·시도교육청 관계자·현장 교사·학생·학부모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 규범 체계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에서 발제하는 「디지털 교육 규범(시안)」은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한 디지털 교육의 지향점과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대한 기본원칙을 담고 있다. 이러한 규범은 교육 주체가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행동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 “자유와 권리 보장”, “공정성과 기회 균등”, “안전과 신뢰”,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 증진”

본 시안은 교육부가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활용을 위해 세계 최초로 마련한 교육 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2022.8.)」을 디지털 교육 체제 전반으로 확장했다는 점, 대한민국 정부가 디지털 심화 시대의 공동번영사회 실현을 위해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2023.9.)」을 교육 분야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교수자, 학습자 등 교육 분야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영찬 디지털교육기획관은 “디지털 기술은 인간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고 구성원이 함께 준수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10회 디지털 인재양성 100인 토론회(포럼)」 계획

담당 부서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책임자	과 장	송선진 (044-203-7046)
		담당자	사무관	정한희 (044-203-7047) 강성화 (044-203-7049)

붙임

제10회 「디지털 인재양성 100인 토론회(포럼)」 계획

□ 개 요

- 주제 : 디지털 교육 규범체계 정립 방향과 전망
- 일시 : 2024. 3. 28. (목) 14:00~16:00
- 장소 : 서울교대 전산교육관 교육공학실 / 온라인*

* 이화여자대학교 미래교육연구소 유튜브 채널
- 참석 : 전문가 및 교육관계자 100여 명
- 주최/주관 : 교육부, 한국교육학회/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

□ 세부일정

시간		주요 내용	
14:00:~14:04	4'	개회 및 포럼 참가자 소개	사회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
14:04~14:10	6'	인사말	교육부 한국교육학회
14:10~14:40	30'	[발제1] 디지털 권리장전의 주요 내용과 과제	최문실 본부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 포용본부)
14:40~15:10	30'	[발제2] 디지털 교육 규범(시안)	황재운 연구교수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
15:10~15:58	48'	종합토론(3인) 및 질의답변 ※ 좌장 : 이화여대 정제영 교수	문정욱 실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갑수 교수 (서울교대) 박보람 교수 (강원대)
15:58~16:00	2'	정리(향후 일정 안내 등) 및 폐회	사회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

※ 세부 일정은 당일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